결과보고서

33rd BeFe BABYFAIR

2.8-2.11 COEX

주최 BeFe 베페 협찬 Ofmom

목 차

Section 1. 전시개요 .....

Section 2. 관람객 데이터 분석자료.....

Section 3. 광고 · 홍보 활동.....

Section 1.

전 시 개 요

Section 1. 전시 개요

1) 명 칭

▫ 한 글: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

▫ 영 어: The 33rd BeFe BABYFAIR

2) 기 간

▫ 2018. 2. 8(목) ~ 2. 11(일)/ 10:00~18:00

3) 장 소

▫ 코엑스 Hall A, B

4) 주 최

▫ ㈜베페

5) 협 찬

▫ 오브맘

6) 전시품목

▫ 태교용품: 태담, 태교관련도서, 음반

▫ 임산부용품: 임부복 및 속옷, 피부보호제, 보조식품, 임산부의료기기

▫ 임산부서비스: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 출산용품: 의류, 침구, 영유아 전용 스킨케어 및 기타용품

▫ 영유아식품: 분유, 이유식, 음료수, 보조식품

▫ 영유아서비스: 제대혈은행, 스튜디오, 생활가전, 태아보험, 베이비시터, 기념소품

▫ 안전용품: 유모차, 캐리어, 카시트, 보행기, 안전용품, 아기방 꾸미기 제품,
유아침대, 영유아 가구

▫ 지능개발프로그램: 놀이완구,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지능개발용품

▫ 인터넷 서비스: 임신, 출산, 육아, 여성관련 인터넷 정보제공 업체

▫ 기 타: 유해환경 보호제품, 영유아용 아이디어개발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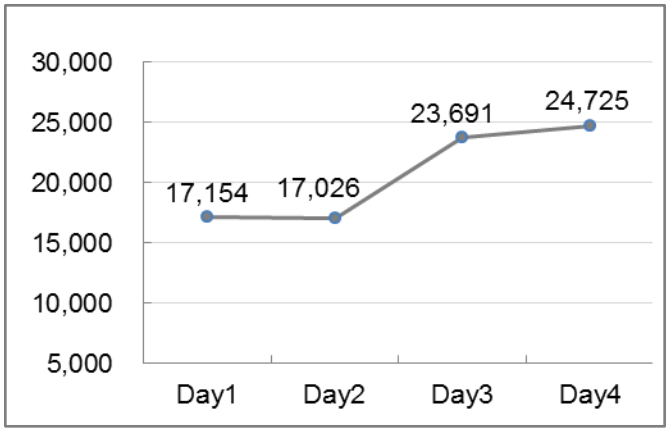
Section 2.

관람객 데이터 분석자료

Section 2. 관람객 데이터 분석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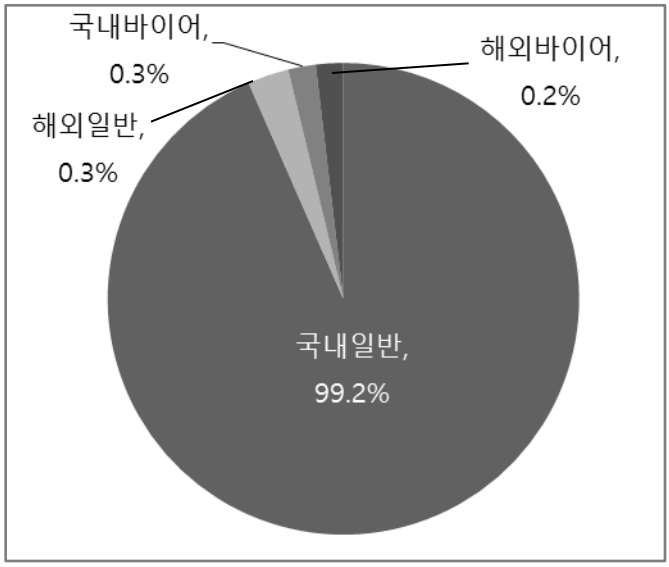
1. 일자별 참관현황

일 자	인 원(명)	비 율(%)
2월 8일(목)	17,154	20.8
2월 9일(금)	17,026	20.6
2월 10일(토)	23,691	28.7
2월 11일(일)	24,725	29.9
합 계	**82,59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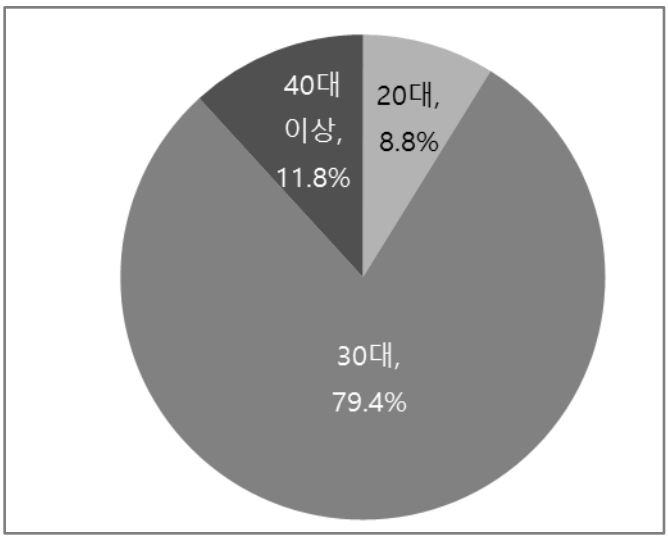
2. 참관객 구분

구 분	인 원(명)	비 율(%)
국내일반	81,909	99.2
해외일반	281	0.3
국내바이어	242	0.3
해외바이어	164	0.2
합 계	**82,59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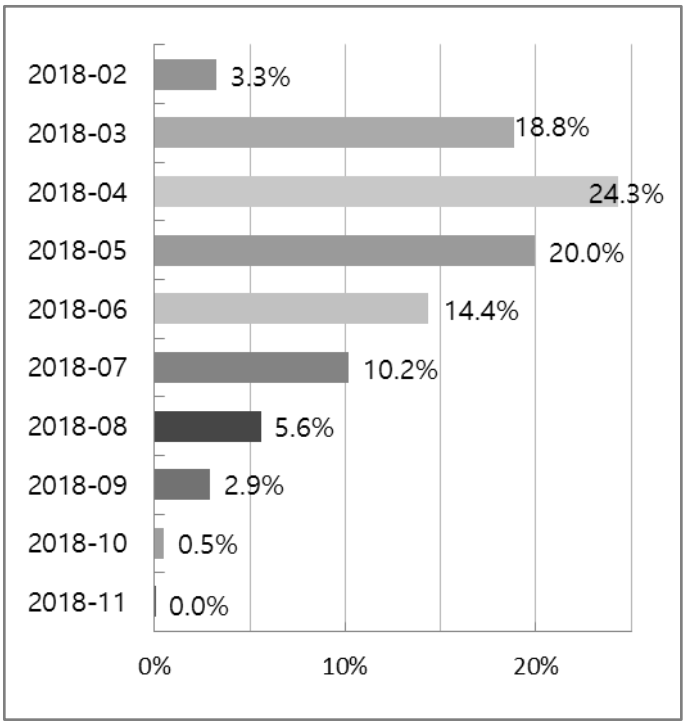
3. 관람객 연령대 분포도

연령대	인 원(명)	비 율(%)
10대	31	0.0
20대	7,268	8.8
30대	65,596	79.4
40대 이상	9,701	11.8
합 계	**82,59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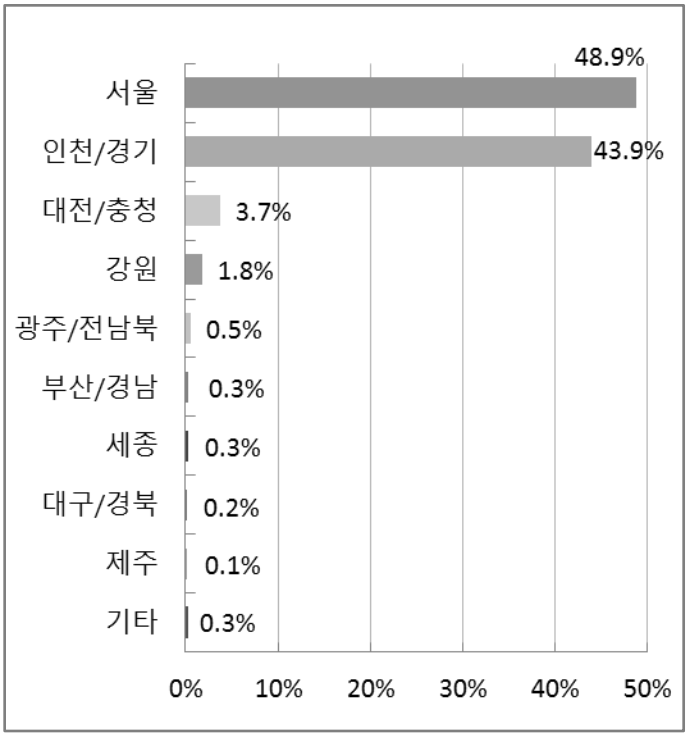
4. 임산부 출산예정일별 현황

출산예정 월	인 원(명)	비 율(%)
2018년 02월	908	3.3
2018년 03월	5,257	18.8
2018년 04월	6,779	24.3
2018년 05월	5,585	20.0
2018년 06월	4,027	14.4
2018년 07월	2,834	10.2
2018년 08월	1,555	5.6
2018년 09월	818	2.9
2018년 10월	140	0.5
2018년 11월	5	0.0
합 계	**27,9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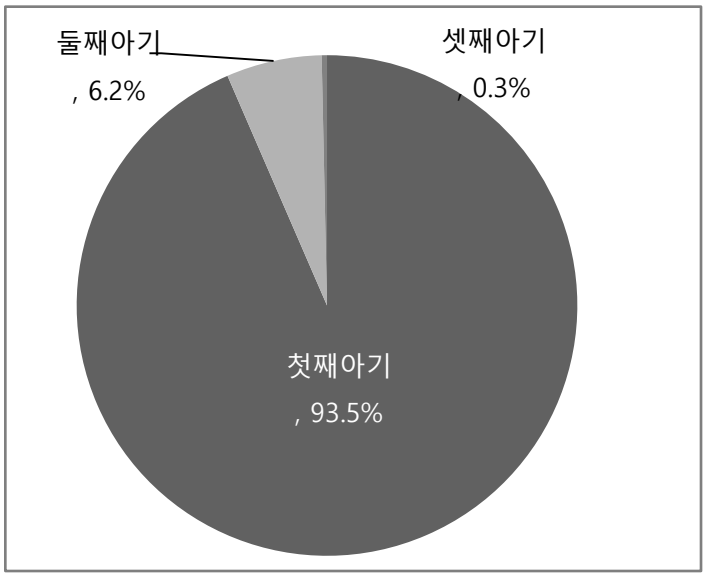
5. 임산부 지역별 등록현황

지 역	인 원(명)	비 율(%)
서울	13,637	48.9
인천/경기	12,254	43.9
대전/충청	1,036	3.7
강원	493	1.8
광주/전남북	132	0.5
부산/경남	93	0.3
세종	72	0.3
대구/경북	67	0.2
제주	35	0.1
기타	89	0.3
합계	**27,9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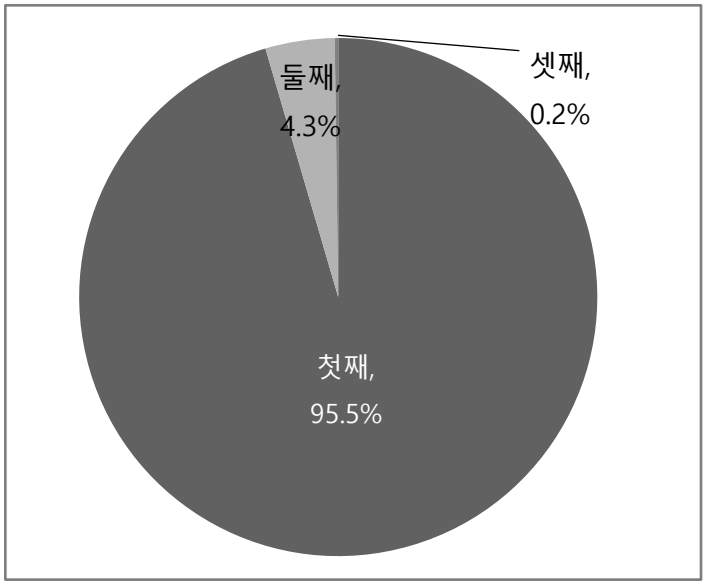


6. 아기 수 현황

전체관람객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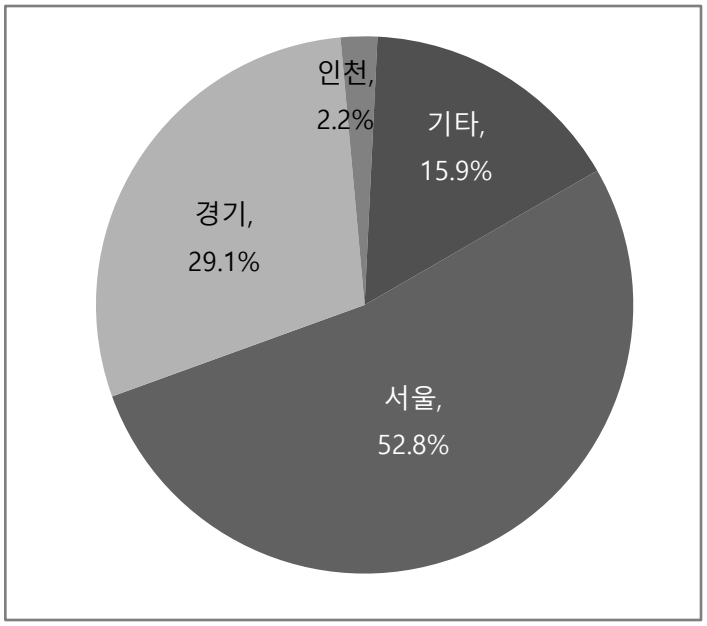


출산예정(임신중)



7. 지역별 등록현황

지 역	인 원(명)	비 율(%)
서울	43,611	52.8
경기	24,035	29.1
인천	1,817	2.2
기타	13,133	15.9
합 계	**82,596**	**100.0**



8. 서울 · 경기 · 인천 구별 참관 현황

1) 서울시

지 역	인 원(명)	비율(%)
송파구	5,887	13.5
강남구	5,367	12.3
서초구	3,118	7.1
강동구	2,625	6.0
광진구	2,604	6.0
성동구	2,589	5.9
관악구	2,222	5.1
동작구	2,068	4.7
노원구	1,647	3.8
중랑구	1,623	3.7
영등포구	1,533	3.5
강서구	1,376	3.2
성북구	1,278	2.9
마포구	1,209	2.8
동대문구	1,201	2.8
구로구	1,104	2.5
용산구	913	2.1
양천구	898	2.1
은평구	698	1.6
서대문구	679	1.6
도봉구	670	1.5
중구	650	1.5
강북구	591	1.4
금천구	578	1.3
종로구	483	1.1
합 계	**43,611**	**100.0**

2) 경기도

지 역	인 원(명)	비율(%)
성남시 분당구	2,407	10.0
화성시	1,828	7.6
남양주시	1,449	6.0
용인시 기흥구	1,198	5.0
용인시 수지구	1,196	5.0
수원시 영통구	1,161	4.8
광주시	1,148	4.8
안양시 동안구	930	3.9
성남시 수정구	887	3.7
하남시	881	3.7
성남시 중원구	760	3.2
광명시	727	3.0
부천시	722	3.0
수원시 권선구	676	2.8
군포시	645	2.7
구리시	605	2.5
안양시 만안구	511	2.1
평택시	460	1.9
의정부시	447	1.9
안산시 상록구	423	1.8
수원시 장안구	409	1.7
시흥시	400	1.7
용인시 처인구	371	1.5
수원시 팔달구	367	1.5
김포시	347	1.4
이천시	346	1.4
오산시	332	1.4
의왕시	291	1.2
안산시 단원구	290	1.2
고양시 덕양구	282	1.2
파주시	214	0.9
고양시 일산동구	176	0.7
안성시	150	0.6
포천시	137	0.6
양주시	130	0.5
과천시	129	0.5
양평군	119	0.5
고양시 일산서구	114	0.5
부천시 원미구	86	0.4
여주시	81	0.3
가평군	60	0.3
동두천시	58	0.2
부천시 소사구	34	0.1
연천군	24	0.1
부천시 오정구	16	0.1
여주군	11	0.1
합계	**24,035**	**100.0**

3) 인천광역시

지 역	인 원(명)	비율(%)
인천시 부평구	409	22.5
인천시 남동구	347	19.1
인천시 서구	319	17.6
인천시 연수구	313	17.2
인천시 남구	224	12.3
인천시 계양구	118	6.5
인천시 중구	53	2.9
인천시 동구	22	1.2
인천시 강화군	12	0.7
합 계	**1,817**	**100.0**

Section 3.

광고 · 홍보활동

Section 3. 광고 · 홍보활동

1. 전문지

▫ 전시관련 전문지광고 4회(2018년 1~2월)

2. Radio 광고

▫ 공중파 라디오 광고 총 1,000회(2018년 1~2월)

3. 온라인/모바일 광고

▫ 공식 홈페이지운영(www.befe.co.kr): 행사홍보 및 회원가입시스템 구축
▫ 모바일 웹 페이지(m.befe.co.kr) 운영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베페'를 통한 서비스 제공 및 광고홍보
▫ 공식 블로그 운영: 네이버 '베페맘 스토리'운영 및 전문지식인 답변 활동
▫ Kakaostory, Instagram, Facebook등 SNS 채널 활용 타겟 광고 및 홍보
▫ 온라인, 모바일 검색어 광고 실시
▫ 베페모먼트 이벤트 실시(이벤트 홍보 영상제작 및 바이럴, 모객 이벤트 SNS상 실시)
▫ CJ ONE 회원 중 타겟 고객대상 앱 푸쉬 및 무료입장 이벤트 실시

4. 옥외광고물 설치홍보

▫ 서울시내 육교 현판 32개소 설치(2018년 1~2월)
▫ 전시장 내.외부 홍보물 설치

5. 매거진<BeFe>

▫ 베스트 브랜드 부스, 용도별 추천 코스 등 전시회 및 참가브랜드 안내
▫ 참가기업 정보 및 전시장 도면, 참가사 이벤트 프로그램, 브랜드 광고 수록

6. Press Release

▫ 베페 베이비페어 공식 홍보 대행사'플랜얼라이언스'에서 홍보대행
▫ 각 언론사 및 방송매체에서 500회 이상 보도자료 배포(임신, 출산, 육아 Trend Report 14호 발행)

7. 서포터즈 운영

▫ 베페 서포터즈 명예 150명/ 일반 150명 운영

언론배포용_임신 출산 육아 트렌드 리포트 발행 Vol.14

홍보바이럴 영상_베페모먼트 프로젝트(2018.01~02)

지면_중앙일보 2018.02.07

중앙일보
2018년 02월 07일
B05면 (경제)

출산·육아 380개 브랜드 참여 8일부터 베이비페어

주식회사 베페가 주최하는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가 8일부터 11일까지 코엑스 1층 Hall A, B에서 열린다. 공식 협찬사 오브맘을 비롯해 국내외 임신·출산·육아·교육 관련 380여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온라인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기존 회원정보 업데이트를 하면 무료 입장할 수 있다.

(11.7*3.3)cm

지면_매일경제 2018.02.08

매일경제
2018년 02월 08일
B03면 (유통/소비자)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 11일까지

380여 개 국내외 임신·출산·육아 브랜드가 총출동하는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가 8~11일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임신·출산·육아·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고민을 모두 아우르는 한편 세분화된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킨다는 뜻의 '베페 케어'를 주제로 열린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로, 베페 온라인(모바일) 신규 회원 또는 베페 홈페이지 회원정보 업데이트를 마친 기존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이번 전시 현장에서는 임신부, 육아 부모들이 필요한 제품을 직접 체험해보고 구매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과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행사·혜택도 마련된다. 전시장 현장에서는 선착순 입장객 이벤트와 스탬프투어 등이 진행되며, 특히 '베페모먼트 작품전' 갤러리에서 아름다운 그림 작품으로 재탄생한 임신·출산·육아의 순간을 감상할 수 있다.

(8.0*8.3)cm

지면_경향신문 2018.02.09

경향신문

2018년 02월 09일
21면 (경제)

국내외 임신·출산·육아용품 '한눈에' 국내외 임신·출산·육아 브랜드 380여개사가 참여해 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한 업체 부스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3*12.8)cm

지면_세계일보 2018.02.09

세계일보

2018년 02월 09일
16면 (경제)

국내 최대 영유아 박람회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 영유아 박람회인 '베페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유모차를 살펴보고 있다. 남제현기자

(13.8*8.9)cm

지면_국민일보 2018.0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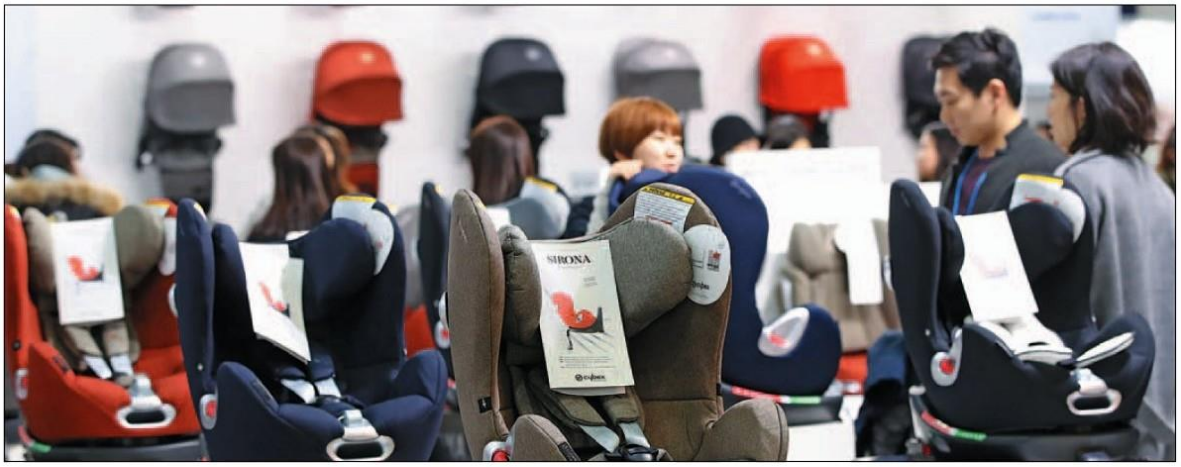
국민일보
2018년 02월 09일
23면 (경제)

관람객 발길 붙잡은 육아용품 관람객들이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국내외 380여개 임신·출산·육아 브랜드가 참여한 박람회는 11일까지 열린다. 곽경근 선임기자

(18.5*17.8)cm

지면_서울경제 2018.02.09

서울경제
2018년 02월 09일
20면 (기업)



"내 아이 지켜줄 카시트는" 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380여개 국내외 임신·출산·육아 브랜드가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오는 11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17.9*8.1)cm

지면_서울경제 2018.02.10

서울경제
2018년 02월 10일
08면 (기획)

포맘스 스마트 바운서(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한 팔 위에 아이를 앉힐 수 있게 도와주는 '파파 캐리어', 릴린저 샴푸캡, 현대자동차 사내 벤처팀이 만든 카시트 '폴레드'. /사진제공=11번가·베페

"플래디·프렌디 눈길 잡아라" 아빠 맞춤형 육아용품 봇물

국내 최대 베이비페어의 전체 관람객 가운데 남성의 비중이 지난 2013년 26%에서 지난해 48%로 무려 2배가량 늘었다. 전체 관람객의 절반이 남성이라는 것은 여성에게 치우쳤던 육아 부담을 나누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육아 방관자'가 아니라 함께 놀아주는 '플래디(play+daddy)', 친구 같은 '프렌디(friend+daddy)'가 되기를 원하는 남성들이 늘면서 관련 제품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육아용품을 구매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 11번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용품 남성 구매자 수는 전년보다 4% 늘었다. 올해 들어 5일까지 육아용품을 산 남성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증가했다. 지난해 남성들의 결제거래액도 2016년에 비해 6% 늘어났다.

육아용품 업체들도 이에 발맞춰 아빠들을 공략하는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다양한 기술이 접목돼 남성들의 보다 쉬운 육아를 도와주는 것이 특징이다.

'에브리데이 베이비'의 온도감지 유리 젖병은 아기가 분유를 마시기 좋은 온도인 섭씨 40도를 기준으로 색깔이 변한다. 분유 온도 맞추기에 서툰 초보 아빠들도 쉽게 아이에게 분유를 먹일 수 있다. '포맘스 스마트 바운서'는 아이를 감싸는 디자인으로 아이 안기가 어려운 아빠들도 쉽게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다. 5단계로 속도 및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어 보채는 아이를 쉽게 달랠 수 있다.

아기띠도 아빠들에게 맞춘 상품이 눈에 띈다. 여성의 체형보다는 남성의 체형을 고려한 무채색에 심플한 디자인의 제품들이다. '버팔로 베이비 컴포트'는 엄마가 안아주는 느낌을 구현한 백팩 형태의 포대기다. 등에 메는 형태로 아이를 장시간 업고 다녀도 허리와 어깨가 피곤하지 않도록 무게를 분산하는 기술을 적용했다.

'파파 캐리어'는 남성들이 착용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일반 포대기를 최대한 간소화한 디자인의 제품이다. 마치 한쪽 팔에 깁스를 한 것처럼 띠를 매고 한 팔 위에 아이를 앉힐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아이를 앉지 않은 팔로 아이의 등을 받친 채 다니면 된다.

'릴린저 샴푸캡'은 아이 머리 감기기에 서툰 아빠들을 위한 제품이다. 아이 눈이나 귀에 비눗물이 들어가지 않게 머리를 감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구멍 뚫린 고무대야를 아이 머리 위에 씌우면 샤워캡 내부에 부착된 밀착 패드가 아이의 눈과 귀로 비눗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다.

'플래디 트레블 오거나이저 멀티백'은 육아용품을 담기 좋은 깔끔한 디자인의 백팩이다. 보통 기저귀가방이라고 하면 화려하고 여성스러운 디자인이 많은데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육아 아빠가 사용하기에 편하다. 육아용품을 정리할 수 있는 오거나이저 또는 태블릿 거치대로 활용할 수 있다.

남성이 육아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오르면서 육아용품을 만드는 데 직접 뛰어드는 아빠들도 나오고 있다. 실제 육아를 경험한 아빠들이 기업의 사내벤처 또는 창업을 통해 육아용품을 만드는 것이다.

코니아기띠는 엄마·아빠가 공동 대표인 브랜드다. 실제 아기띠를 사용하면서 느낀 애로사항을 개선한 제품을 선보였다. 현대자동차 사내벤처팀은 최근 카시트 '폴레드'를 개발하고 지난달 15일부터 주니어 카시트 'Ball-FIX 310'의 판매를 시작했다. 10년 이상의 자동차 연구경력을 가진 '아빠' 연구원들이 개발에 참여했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지난해 베이비페어 관람객 절반이 남성
11번가 육아용품 男구매자도 지속 상승
파파 캐리어·릴린저 샴푸캡 등 용품 눈길

온라인_서울경제 2018.01.03

제 33회 베페 회원가입 평생 무료입장 이벤트 실시

- 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회원은 회원정보 수정해 무료 입장
-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 선착순 입장객 대상 경품 증정 및 이벤트 '풍성'

김동호 기자 | 2018-01-03 16:22:51 | 사회이슈

오는 2월 11일까지 베페 홈페이지나 베페 모바일앱을 통해 새로 가입한 신규회원이면 누구나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는 물론, 향후 열리는 행사에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기존 회원의 회원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수정할 항목이 없는 회원은 별도의 수정 없이 회원정보 수정페이지에서 '확인' 아이콘만 누르면 무료 입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에는 무료입장 이벤트뿐 아니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끄는 푸짐한 선착순 경품과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있다. 먼저, 2월 8일(목)과 9일(금) 등 평일 선착순 입장객 2000명(이틀간 총 4000명)에게 케이스키즈 씽씽이 애벌레 장난감을 증정한다. 또, 2월 9일(금)과 11일(일) 전시장 Hall A3, Hall B2 입구에서 임산부 관람객 선착순 600명(이틀간 총 1200명)은 '루퍼스래빗 룸퍼&비니세트'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관람객이 응모한 SNS 사진 중 일부를 전문 작가의 그림 작품으로 재탄생 시켜주는 '베페 모먼트' 행사도 참여할 수 있다.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소중한 순간이 담긴 사진을 응모하면 되며, 당첨된 사진은 작가가 그림으로 그려 전시장에 게시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는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브랜드 클래스'를 새롭게 마련한다. 태교교실, 베이비마사지, 아이촬영 노하우, 영양관리 방법 등 임신?출산?육아 관련 다양한 주제의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근표 베페 대표는 "임신, 출산, 육아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풍성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라고 말하며, "베페 베이비페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베이비페어로서, 관람객들에게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전방위적인 케어를 제공하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는 오는 2월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Hall A, B에서 개최된다. 무료 입장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베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온라인_베이비뉴스 2018.01.03

베페 회원 가입하면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 무료 입장

윤정원 기자 | 승인 2018.01.03 16:47 | 댓글 0

푸짐한 선착순 경품과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베페 회원가입 평생 무료입장 이벤트를 실시하는 ㈜베페. ⓒ㈜베페

㈜베페(대표 이근표)는 2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제33회 베페의 회원가입 평생 무료입장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월 11일까지 베페 홈페이지나 베페 모바일앱을 통해 새로 가입한 신규 회원이면 누구나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는 물론, 향후 열리는 행사에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기존 회원은 회원정보를 수정하면 되며 수정할 항목이 없는 회원은 별도의 수정 없이 회원정보 수정페이지에서 '확인' 아이콘만 누르면 무료 입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에는 무료입장 이벤트뿐 아니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끄는 푸짐한 선착순 경품과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있다. 먼저 2월 8일과 9일 등 평일 선착순 입장객 2000명(이틀간 총 4000명)에게 케이스키즈 씽씽이 애벌레 장난감을 증정한다. 또한 2월 9일과 11일 전시장 Hall A3, Hall B2 입구에서 임산부 관람객 선착순 600명(이틀간 총 1200명)은 '루퍼스래빗 룸퍼·비니세트'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관람객이 응모한 SNS 사진 중 일부를 전문 작가의 그림 작품으로 재탄생 시켜주는 '베페 모먼트' 행사도 참여할 수 있다.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소중한 순간이 담긴 사진을 응모하면 되며 당첨된 사진은 작가가 그림으로 그려 전시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는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브랜드 클래스'를 새롭게 마련한다. 태교교실, 베이비마사지, 아이촬영 노하우, 영양관리 방법 등 임신·출산·육아 관련 다양한 주제의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근표 베페 대표는 "임신·출산·육아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풍성한 혜택을 드

로서 관람객들에게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전방위적인 케어를 제공하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외 임신·출산·육아 산업을 대표하는 380여 개 인기 브랜드의 유아용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는 2월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Hall A, B에서 개최된다. 무료 입장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베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온라인_우먼컨슈머 2018.01.09

베페 베이비페어, '베페모먼트 소문내기' 이벤트

신은세 기자 | 승인 2018.01.09 16:50 | 댓글 0

2월 11일까지 SNS에서 소문내면 42명에게 경품 증정

[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베페(대표 이근표)는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를 앞두고 2월 11일까지 '베페모먼트 소문내기' 공식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 공식 경품 이벤트 (베페 제공)

이 행사는 예비 엄마, 아빠와 태어날 아이에게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방법은 베페 홈페이지에 올라온 '베페모먼트 소문내기' 이벤트 페이지를 '#베페모먼트', '#베페베이비페어' 해시태그와 함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SNS에 공유하고 해당 공유 게시물 URL을 이벤트 페이지 댓글창에 입력하면 된다.

이벤트 종료 후, 추첨을 통해 총 42명에게 △두나 유모차&카시트(1명) △보령아이맘셀 10년 보관(1명) △맥시코시 엑시스픽스 플러스(1명) △포맘스 스마트 바운서 플러스(1명) △위닉스 타워XQ600(1명) △다이치 퍼스트세븐 오가닉 블랙(1명) △뉴나 째즈 식탁의자(2명) △알집매트 네오 칼라폴더(2명) 등 총 1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오는 2월 27일 베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오는 2월 2일까지 진행하는 '베페모먼트 이벤트' 응모도 가능하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순간이 담긴 사진과 사연을 남기면 총 30명을 선정해 사진을 전문 작가의 그림 작품으로 재탄생 시켜준다. 작품은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에 전시될 예정이다.

이근표 베페 대표는 "엄마와 아빠, 아이 모두에게 최고의 축복이자 행복인 임신·출산·육아의 아주 특별한 순간을 간직하고 싶은 분들이 많지만, 바쁜 일상 등 여러 이유들로 정작 그 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점에 착안했다"며,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의 '베페모먼트'와 '베페모먼트 소문내기' 이벤트를 통해 소중한 순간도 간직하고, 다양한 경품도 누리셨으면 하는 바람이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베페 베이비페어는 2월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Hall A, B에서 열린다.

온라인_NSP통신 2018.01.16

베페, 이벤트 프로모션 영상 공개

(입력) 2018-01-16 10:27:22
(태그) #베페, #베페모먼트

(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베페는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를 앞두고 '베페모먼트 이벤트' 프로모션 영상을 베페 페이스북 등 자사 SNS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베페모먼트 이벤트는 출산을 앞둔 예비맘·대디들과 한창 육아 중인 부모들이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잊지 못할 순간(모먼트·moment)을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와 함께 남기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본인의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사진과 사연을 남기면 총 30명을 선정해 응모한 사진을 전문 작가의 그림 작품으로 그려주는 이벤트다.

영상을 통해 소개된 '베페모먼트 이벤트'는 오는 2월 2일까지 이어진다. 임신·출산·육아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이들이라면 누구나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이근표 베페 대표는 "임신·출산·육아의 소중한 기억을 영원히 남길 수 있는 베페모먼트 이벤트를 보다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영상을 론칭했다"며 "대한민국 대표 베이비페어를 이어나가는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엄마, 아빠들에게 임신·출산·육아가 주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박유니 기자, ynpar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온라인_서울경제 2018.01.29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 100배 즐기기 선격 공개

온라인_이데일리 2018.02.06

육아용품 박람회 '베페'...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송주오 기자 | 2018-02-06 08:36

교육·이유식·카시트, 3대 관전 포인트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코엑스서 개최

(사진=베페)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육아 트렌드가 출산부터 육아, 교육 등 전방위적인 토탈 케어로 흐르고 있다. 한 명의 자녀에게 집중하는 부모가 증가한 탓이다. 이에 따라 육아용품 박람회 대명사 '베페 베이비페어'에서는 부모들의 수요를 충족할 용품을 대거 선보이며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교육 분야 용품이 세분화됐다. 브레인나우와 도서출판 아람은 영유아들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교재, 교구 전집을 선보인다. 또 아이 발달단계에 따라 수준을 세분화한 아이챌린지의 월령프로그램과 웅진북클럽의 연령별 독서프로그램, 프뢰벨의 영아용 교재·교구들과 핀덴의 다양한 영아발달 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영유아에게 최적화된 스토리와 영상, 율동, 음악이 어우러진 영어 교육 프로그램 잉글리시에그와 디즈니 캐릭터들이 등장해 함께 영어를 배우는 홈스쿨링 교재 디즈니월드잉글리쉬도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다.

(사진=베페)

이유식도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다. 유기농 쌀을 주원료로 이유식을 만드는 베베쿡과 당일생산, 당일배송을 원칙으로 하는 루솔은 배달 이유식으로, 바쁜 맞벌이 부부들에게 인기다. 위생을 중시하는 부모들에게는 친환경 유리병에 담은 푸드케어의 이유식과 특허 받은 위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엘빈즈 이유식도 각광을 받고 있다. 분유는 영양성분이 보존된 신선한 원유의 맛을 유지한 프리미엄 액상분유 오브맘과 성장강화 분유인 뉴트리시아 인파트리니가 눈에 띈다.

카시트의 품목 다양화도 주목해볼 수 있다. 2016년 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령에 따라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차량에 태울 때는 카시트를 필수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카시트 업체들은 법 개정에 맞춰 카시트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다양한 제품을 출시했다.

독일 레카로의 몬자노바 EVO 주니어카시트와 브라이텍스의 플래티넘은 뛰어난 안정성으로 정평이 나있다. 국내업체 중에서는 다이치의 원픽스 360은 국내 최초 회전형 카시트로 어느 방향이든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하다. 순성의 라온은 손쉬운 장착이 가능한 빌트인 ISOFIX 방식으로 오장착률을 낮추고 안정성을 높였다.

한편, 올해 최신 국내 육아업계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는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홀A, B에서 개최된다.

온라인_NSP통신 2018.02.06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베페, 임신에서 출산까지…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 개최

(입력) 2018-02-06 09:02:33
(태그) #베페, #베이비페어

(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베페 베이비페어가 8일부터 나흘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는 공식 협찬사인 오브맘을 포함해 국내외 임신 출산 육아 교육 관련 380여개 브랜드가 총출동한다. 이번 전시는 임신 출산 육아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고민을 모두 아우르는 한편 세분화된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킨다는 의미의 '베페 케어'를 주제로 했다.

전시 현장에서는 임산부와 육아맘, 대디들이 필요한 다양한 제품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구매할 수 있다. 또 선착순 입장객 이벤트, 베페 스탬프투어 등 실속 있는 현장 행사도 참여할 수 있다.

베이비페어전시장(사진 =베페 제공)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풍성하다. 베페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참가 브랜드별로 체험단 참가 및 이벤트가 진행 중이며, 모바일 앱에서도 전시 참가업체별 제품 할인 및 사은품 증정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전시회 도면 및 참가업체 리스트도 편리하게 체크 가능하다.

특별한 현장 행사도 준비했다. 전시장 내 '베페모먼트 작품전' 갤러리에서 베페모먼트 이벤트를 통해 아름다운 그림 작품으로 재탄생한 임신, 출산, 육아의 순간을 만나볼 수 있다. 베페모먼트 이벤트는 부모들이 개인의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사진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사연과 함께 남기면 30명을 선정해 응모한 사진을 전문 작가 6명이 직접 그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베페 이근표 대표는 "예비 및 현역 부모들이 임신부터 출산, 육아, 교육까지 자녀가 성장하면서 꼭 챙겨야 할 것들을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베이비페어로서 기업 소비자간(B2C)거래뿐 아니라 기업간 거래(B2B) 활성화와 국내 우수 유아용품 기업의 해외 진출 부분에서도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박유니 기자, ynpar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온라인_한국섬유신문 2018.02.06

HOME I I 전체기사

베페,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 개최…임신~교육 한자리서 해결

올바른 임신 출산 육아 문화를 만드는 기업 베페가 주최하는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가 오는 8일~11일까지 나흘간 코엑스 1층 Hall A, B에서 개최된다.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는 공식 협찬사인 오브맘을 포함해 국내외 임신·출산·육아·교육 관련 380여개 브랜드가 총출동한다. 이번 전시는 임신·출산·육아·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고민을 모두 아우르는 한편 세분화된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킨다는 의미의 '베페 케어'를 주제로 했다.
전시 현장에서는 임산부와 육아맘, 대디들이 필요한 다양한 제품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구매할 수 있다. 선착순 입장객 이벤트, 베페 스탬프투어 등 실속 있는 현장 행사도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풍성하다. 베페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참가 브랜드별로 체험단 참가 및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모바일 앱에서 전시 참가업체별 제품 할인 및 사은품 증정 쿠폰을 받을 수 있다.

특별한 현장 행사도 준비했다. 전시장 내 '베페모먼트 작품전' 갤러리에서 베페모먼트 이벤트를 통해 아름다운 그림 작품으로 재탄생한 임신, 출산, 육아의 순간을 만나볼 수 있다.

베페모먼트 이벤트는 부모들이 개인의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사진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사연과 함께 남기면 30명을 선정해 응모한 사진을 전문 작가 6명이 직접 그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베페모먼트 작품전'에 당선작들이 게시되며 당첨자들은 현장에서 본인의 그림을 찾아갈 수 있다. 마치 미술관 갤러리와 같이 꾸며져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되새기게 할 예정이다.

이외에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는 지난 31회에 이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 내수시장 활성화와 국내 유아용품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힘쓴다. 이번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는 지난해 방문한 8개국, 41개사보다 참가국과 바이어사가 늘어 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 폴란드 등 총 13개 국가로부터 50개사가 찾을 계획이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유아용품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상담 및 계약 실적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페 이근표 대표는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베이비페어로서 기업 소비자간(B2C)거래뿐 아니라 기업간 거래(B2B) 활성화와 국내 우수 유아용품 기업의 해외 진출 부분에서도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2-06 10:45:06 정정숙기자 jjs@ktnews.com

온라인_에너지경제 2018.02.06

베페, 임신부터 교육까지…'제 33회 베이비페어' 개최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018.02.06 16:49:32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올바른 임신 출산 육아 문화를 만드는 기업 ㈜베페가 주최하는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가 2월 8일(목)부터 11일(일)까지 나흘간 코엑스 1층 Hall A, B에서 개최된다.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는 공식 협찬사인 오브맘을 포함해 국내외 임신·출산·육아·교육 관련 380여개 브랜드가 총출동한다. 이번 전시는 임신·출산·육아·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고민을 모두 아우르는 한편, 세분화된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킨다는 의미의 '베페 케어'를 주제로 했다.

전시 현장에서는 임산부와 육아맘, 대디들이 필요한 다양한 제품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구매할 수 있다. 또, 선착순 입장객 이벤트, 베페 스탬프투어 등 실속 있는 현장 행사도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풍성하다. 베페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참가 브랜드별로 체험단 참가 및 이벤트가 진행 중이며, 모바일 앱에서도 전시 참가업체별 제품 할인 및 사은품 증정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전시회 도면 및 참가업체 리스트도 편리하게 체크 가능하다.

특별한 현장 행사도 준비했다. 전시장 내 '베페모먼트 작품전' 갤러리에서 베페모먼트 이벤트를 통해 아름다운 그림 작품으로 재탄생한 임신, 출산, 육아의 순간을 만나볼 수 있다. 베페모먼트 이벤트는 부모들이 개인의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사진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사연과 함께 남기면 30명을 선정해 응모한 사진을 전문 작가 6명이 직접 그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베페모먼트 작품전'에 당선작들이 게시되며, 당첨자들은 현장에서 본인의 그림을 찾아갈 수 있다. 마치 미술관 갤러리와 같이 꾸며져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도 소중한 추억을 되새기게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는 지난 31회에 이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 내수시장 활성화와 국내 유아용품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힘쓴다. 이번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는 지난해 방문한 8개국, 41개사보다 참가국과 바이어사가 늘어 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 폴란드 등 총 13개 국가로부터 50개사가 찾을 계획이다. 특히,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유아용품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상담 및 계약 실적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페 이근표 대표는 "예비 및 현역 부모들이 임신부터 출산, 육아, 교육까지 자녀가 성장하면서 꼭 챙겨야 할 것들을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고 말하며,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베이비페어로서 기업 소비자간(B2C)거래뿐 아니라 기업간 거래(B2B) 활성화와 국내 우수 유아용품 기업의 해외 진출 부분에서도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베페 베이비페어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홈페이지 신규 회원 가입 또는 회원정보 업데이트를 마친 기존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온라인_베타뉴스 2018.02.06

종합

제 33회 베이비페어, 8일~1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전소영 기자

기사 글꼴+ 글꼴-

입력 : 2018-02-06 17:36:50

올바른 임신 출산 육아 문화를 만드는 기업 ㈜베페가 주최하는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가 2월 8일(목)부터 11일(일)까지 나흘간 코엑스 1층 Hall A, B에서 개최된다.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는 공식 협찬사인 오브맘을 포함해 국내외 임신•출산•육아•교육 관련 380여개 브랜드가 총출동한다. 이번 전시는 임신•출산•육아•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고민을 모두 아우르는 한편, 세분화된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킨다는 의미의 '베페 케어'를 주제로 했다.

전시 현장에서는 임산부와 육아맘, 대디들이 필요한 다양한 제품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구매할 수 있다. 또, 선착순 입장객 이벤트, 베페 스탬프투어 등 실속 있는 현장 행사도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풍성하다. 베페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참가 브랜드별로 체험단 참가 및 이벤트가 진행 중이며, 모바일 앱에서도 전시 참가업체별 제품 할인 및 사은품 증정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전시회 도면 및 참가업체 리스트도 편리하게 체크 가능하다.

특별한 현장 행사도 준비했다. 전시장 내 '베페모먼트 작품전' 갤러리에서 베페모먼트 이벤트를 통해 아름다운 그림 작품으로 재탄생한 임신, 출산, 육아의 순간을 만나볼 수 있다. 베페모먼트 이벤트는 부모들이 개인의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사진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사연과 함께 남기면 30명을 선정해 응모한 사진을 전문 작가 6명이 직접 그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베페모먼트 작품전'에 당선작들이 게시되며, 당첨자들은 현장에서 본인의 그림을 찾아갈 수 있다. 마치 미술관 갤러리와 같이 꾸며져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도 소중한 추억을 되새기게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는 지난 31회에 이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 내수시장 활성화와 국내 유아용품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힘쓴다. 이번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는 지난해 방문한 8개국, 41개사보다 참가국과 바이어사가 늘어 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 폴란드 등 총 13개 국가로부터 50개사가 찾을 계획이다. 특히,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유아용품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상담 및 계약 실적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페 이근표 대표는 "예비 및 현역 부모들이 임신부터 출산, 육아, 교육까지 자녀가 성장하면서 꼭 챙겨야 할 것들을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고 말하며,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베이비페어로서 기업 소비자간(B2C)거래뿐 아니라 기업간 거래(B2B) 활성화와 국내 우수 유아용품 기업의 해외 진출 부분에서도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베페 베이비페어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베페 온라인(모바일) 신규 회원 가입 또는 베페 홈페이지 회원정보 업데이트를 마친 기존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온라인_이데일리 2018.02.08

[포토]베페 베이비페어 '길게 늘어선 줄'

신태현 기자 | 2018-02-08 15:39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참관객들이 길게 줄을서 입장을 하고 있다.

온라인_ 연합뉴스 2018.02.08

포토홈

엄마아빠가 함께하는 육아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참관객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18.2.8 jin90@yna.co.kr (끝)

온라인_뉴시스 2018.02.08

베이비페어, "직접 체험해보고 구매하세요"

등록 2018-02-08 15:16:47 | 수정 2018-02-08 15:38:17

【서울=뉴시스】 베페가 주최하는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가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1층 Hall A, B에서 개최된다.

전시 현장에서는 임산부와 육아맘, 대디들이 필
필요한 여러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고
제공)

photo@newsis.com

베이비페어, '체험해 보세요'

등록 2018-02-08 15:16:48 | 수정 2018-02-08 15:39:37

【서울=뉴시스】 베페가 주최하는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가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1층 Hall A, B에서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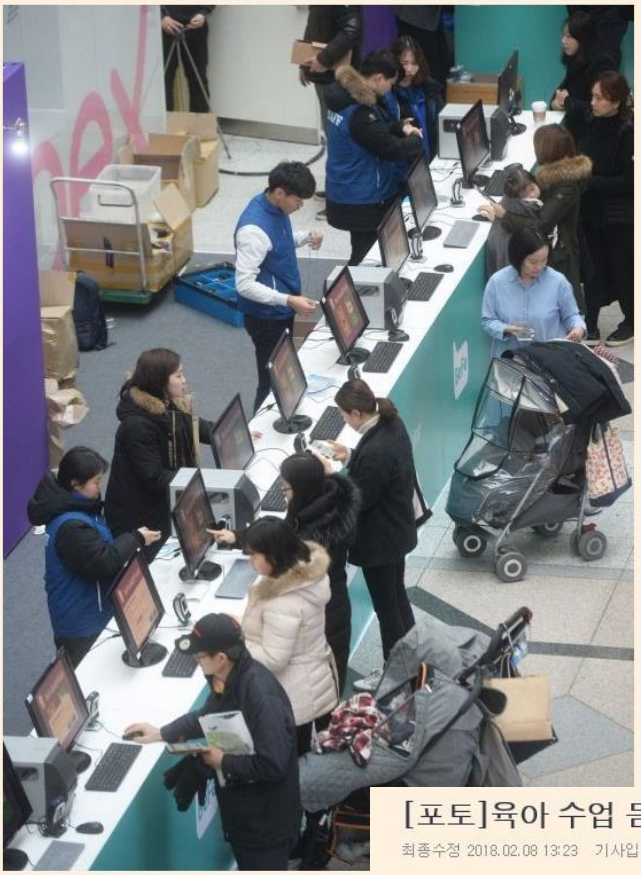
전시 현장에서는 임산부와 육아맘, 대디들이 필요한 다양한 제품들과 자녀 성장 주기에 필요한 여러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고 구매할 수 있다. 2018.02.08. (사진=베페 제공)

photo@newsis.com

온라인_아시아경제 2018.02.08

[포토]육아 향한 관심

최종수정 2018.02.08 13:27 기사입력 2018.02.08 13:27



[포토]육아 수업 듣는 시민들

최종수정 2018.02.08 13:23 기사입력 2018.02.08 13:23

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를 찾은 시민들이 육아 수업을 듣고 있다. 380여개 국내외 임신·출산·육아 브랜드가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오는 11일까지 열린다. /문호남 기자 munonam@

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를 찾은 시민들이 육아 수업을 듣고 있다. 380여개 국내외 임신·출산·육아 브랜드가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오는 11일까지 열린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온라인_뉴시스 2018.02.10

제 33회 베이비페어

등록 2018-02-10 11:17:08

【서울=뉴시스】 (주)베페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8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열었다.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 전시 기간 중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13개국 50개 회사가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2.10. (사진=베페 제공)

photo@newsis.com

2018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록 2018-02-10 11:17:20

【서울=뉴시스】 (주)베페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8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열어 행사장에서 해외 바이어사 관계자가 국내 업체 관계자로부터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2018.02.10. (사진=베페 제공)

photo@newsis.com

온라인_베이비뉴스 2018.02.08

늘어난 육아대디, 넓어진 아빠 수유실

최대성 기자 | 승인 2018.02.08 14:54 | 댓글 0

[베이비뉴스 최대성 기자]

많은 육아맘과 육아대디들이 2018 베페 베이비페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최대성 기자 순베이비뉴스

최신 육아 트랜드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베페 베이비페어가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서 개막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입장이지만 많은 육아맘과 육아대디가 일찌감치 자리해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8 베페 베이비페어를 찾은 한 육아대디가 입장을 기다리며 아기에게 젖병을 물리고 있다. 최대성 기자 순베

행사장을 둘러보니 아기를 안고 행사장을 찾은 아빠들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우는 아이들을 달래고 유모차를 끌며, 육아용품을 둘러보는 아빠들이 낯설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 1만명을 돌파한 아빠 육아휴직의 방증일 것입니다.

아빠 수유실로 들어가는 한 가족 최대성 기자 순베이비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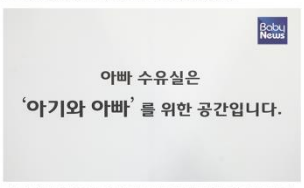
특히, 행사장에 마련된 아빠 수유실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엄마 수유실 옆에 마련된 아빠 수유실은 이용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작년보다 두 배 넓어진 아빠 수유실. 최대성 기자 순베이비뉴스

아빠 수유실에서 만난 한 젊은 아빠는 "엄마 혼자 아기 기저귀를 갈고 수유하는 게 힘든데, 함께 도와줄 수 있어서 좋아요"라며 환하게 웃습니다.

한 육아대디가 아빠 수유실에서 아기를 다독이고 있다. 최대성 기자 순베이비뉴스

행사 관계자는 "최근 육아하는 아빠들의 비중이 높고 혼자 아기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 아빠들을 배려해서 작년보다 규모를 두 배 확장했어요"라며 훈훈한 소식을 전합니다. 작은 배려로 늘어난 육아대디 만큼 아빠 수유실도 넓어진 셈입니다.



아빠 수유실 입구에 적혀있는 '아빠 수유실은 '아기와 아빠'를 위한 공간입니다'라는 글귀. 최대성 기자 순베이비뉴스

이날 포착된 아빠 육아에 대한 작은 배려.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시작이 아닐까요?

[Copyrights©베이비뉴스 pr@babynews.com]

온라인_Queen 2018.02.12

베페 베이비페어, 380여개 브랜드 참가·관람객 8만3000여명 방문 '성료'

백준상 기자 | magazineplus02@hanmail.net

승인 2018.02.12 14:29:25

㈜베페(대표: 이근표)는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가 관람객과 해외 바이어를 모두 매료시키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8일(목)부터 11일(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Hall A, B에서 진행된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에는 약 8만3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이와 함께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860만여달러의 수출도 성사시키면서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육아용품 전시회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임신, 출산, 육아,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고민을 해결함과 동시에 세분화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베페 케어'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국내외 380여개 브랜드가 참여했다. 자녀 성장 주기에 따라 필요한 물품들을 한 자리에서 직접 체험해보며 마련할 수 있는 점과 현장에서만 제공되는 사은 혜택 등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이 특히 높았다.

새롭게 시도된 고객 참여형 이벤트도 이어졌다. 먼저, '베페모먼트 갤러리'에 걸린 이벤트 당선 작품들이 주목을 끌었다. 베페모먼트 이벤트는 본인의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사진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사연과 함께 남기면 30명을 선정해 이를 전문 작가 6명이 직접 그림으로 재탄생 시켜주는 이벤트다. 당첨자들은 현장에서 액자에 담긴 그림을 바로 가져갔으며, 전시장을 찾은 일반 관람객들도 큰 관심을 보이며 작품들을 감상했다.

또, 전시장을 찾은 엄마, 아빠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브랜드 클래스'도 진행됐다. 태교교실, 베이비마사지, 아이촬영 노하우, 영양관리 방법 등 다양한 주제의 강좌가 열렸다.

전시 둘째 날인 9일에는 '2018 베페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실시됐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세계 13개국 50개사의 바이어들이 참석해 국내 업체들과 교류의 장을 가졌다. 특히, 러시아와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 유통망을 갖춘 러시아 기업 'Malek Baby', 세계적 규모의 일본 리테일 그룹사 'Aeon', 터키 최대규모의 오픈마켓인 'Hepsiburada' 등 외국 유수 대형 기업이 방문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 판로 개척에 싹을 틔웠다.

작년 대비 실적도 크게 성장했다. 먼저 총 상담 건수 및 금액은 359건, 5700만여달러였다. 실제 계약 금액은 지난해 약 300만달러에서 올해 약 860만달러(약 94억원)로 무려 세 배 가량 급증했다. 계약 건수도 88건에서 163건으로 작년의 두 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건당 평균 계약 금액은 3만40000여달러에서 5만30000여달러로 1만90000여달러 증가했다.

이러한 성과는 베페가 수년에 걸쳐 해외 유아용품 박람회에 '베페 한국관'을 열고 국내 업체들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한 점과 더불어 우리나라 제품의 품질이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해외 엄마, 아빠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베페 이근표 대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원조 베이비페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소비자간 거래(B2C)와 기업간 거래(B2B)를 함께 발전시키기 위해 부모들은 물론 기업들의 니즈도 충족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번 전시를 진행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국내 유아산업 활성화,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 및 유망 기업 수출 판로 개척 등을 이어나가며 임신, 출산, 육아 문화를 만들어가는 선도 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거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온라인_베타뉴스 2018.02.12

종합

베페 베이비페어, 수출 계약 금액 860만여달러 달성 '성황리 막 내려'

전소영 기자

기사 | 글꼴 + | 글꼴 −

입력 : 2018-02-12 15:20:41

㈜베페(대표: 이근표)는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가 관람객과 해외 바이어를 모두 매료시키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8일(목)부터 11일(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Hall A, B에서 진행된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에는 약 8만30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이와 함께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860만여달러의 수출도 성사시키면서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육아용품 전시회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임신, 출산, 육아,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고민을 해결함과 동시에 세분화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베페 케어'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국내외 3800개 브랜드가 참여했다. 자녀 성장 주기에 따라 필요한 물품들을 한 자리에서 직접 체험해보며 마련할 수 있는 점과 현장에서만 제공되는 사은 혜택 등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이 특히 높았다.

새롭게 시도된 고객 참여형 이벤트도 이어졌다. 먼저, '베페모먼트 갤러리'에 걸린 이벤트 당선 작품들이 주목을 끌었다. 베페모먼트 이벤트는 본인의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사진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사연과 함께 남기면 30명을 선정해 이를 전문 작가 6명이 직접 그림으로 재탄생 시켜주는 이벤트다. 당첨자들은 현장에서 액자에 담긴 그림을 바로 가져갔으며, 전시장을 찾은 일반 관람객들도 큰 관심을 보이며 작품들을 감상했다.

또, 전시장을 찾은 엄마, 아빠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브랜드 클래스'도 진행됐다. 태교교실, 베이비마사지, 아이촬영 노하우, 영양관리 방법 등 다양한 주제의 강좌가 열렸다.

전시 둘째 날인 9일에는 '2018 베페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실시됐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세계 13개국 50개사의 바이어들이 참석해 국내 업체들과 교류의 장을 가졌다. 특히, 러시아와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 유통망을 갖춘 러시아 기업 'Malek Baby', 세계적 규모의 일본 리테일 그룹사 'Aeon', 터키 최대규모의 오프마켓인 'Hepsiburada' 등 외국 유수 대형 기업이 방문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 판로 개척에 싹을 틔웠다.

작년 대비 실적도 크게 성장했다. 먼저 총 상담 건수 및 금액은 359건, 5700만여달러였다. 실제 계약 금액은 지난해 약 300만달러에서 올해 약 860만달러(약 94억원)로 무려 세 배 가량 급증했다. 계약 건수도 88건에서 163건으로 작년의 두 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건당 평균 계약 금액은 3만4000여달러에서 5만30000여달러로 1만90000여달러 증가했다.

이러한 성과는 베페가 수년에 걸쳐 해외 유아용품 박람회에 '베페 한국관'을 열고 국내 업체들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한 점과 더불어 우리나라 제품의 품질이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해외 엄마, 아빠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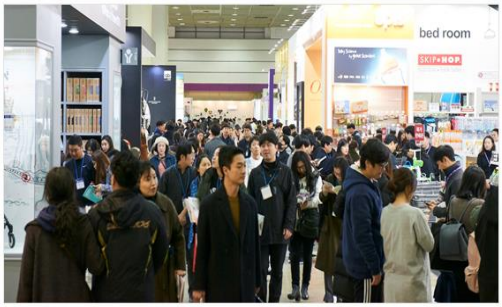
㈜베페 이근표 대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원조 베이비페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소비자간 거래(B2C)와 기업간 거래(B2B)를 함께 발전시키기 위해 부모들은 물론 기업들의 니즈도 충족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번 전시를 진행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국내 유아산업 활성화,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 및 유망 기업 수출 판로 개척 등을 이어나가며 임신, 출산, 육아 문화를 만들어가는 선도 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_한국섬유신문 2018.02.12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 B2C·B2B로 발전 성장 …해외수출 860만달러 달성

베페 베이비페어가 기업·소비자간 거래(B2C)와 기업간 거래(B2B)를 함께 발전시키며 작년 대비 올해 크게 성장했다. 베페(대표 이근표)는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가 관람객과 해외 바이어를 모두 매료시키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8일~1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된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는 5700만여달러 상담 실적을 올렸다. 상담 건수는 지난해 대비 두 배에 달하는 359건에 이른다. 실제 계약 금액은 지난해보다 세 배 높은 약 860만달러(약 94억원)을 기록했다. 건당 평균 계약 금액은 5만3000여달러다. 지난해보다 1만9000여달러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성과는 베페가 수년에 걸쳐 해외 유아용품 박람회에 '베페 한국관'을 열고 국내 업체들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한 결과다. 또 한국 제품 품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해외 엄마, 아빠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시 둘째 날인 9일에는 '2018 베페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실시됐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세계 13개국 50개사의 바이어들이 참석해 국내 업체들과 교류의 장을 가졌다. 특히, 러시아와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 유통망을 갖춘 러시아 기업 'Malek Baby', 세계적 규모의 일본 리테일 그룹사 'Aeon', 터키 최대규모의 오프마켓인 'Hepsiburada' 등 외국 유수 대형 기업이 방문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 판로 개척에 싹을 틔웠다.

베페 이근표 대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원조 베이비페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소비자간 거래(B2C)와 기업간 거래(B2B)를 함께 발전시키기 위해 부모들은 물론 기업들의 니즈도 충족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번 전시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국내 유아산업 활성화,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 및 유망 기업 수출 판로 개척 등을 이어나가며 임신, 출산, 육아 문화를 만들어가는 선도 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380여개 브랜드가 참여한 이번 행사에는 약 8만3000여명 관람객이 방문했다.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860만여달러의 수출도 성사시키면서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육아용품 전시회로 위상을 입증했다. 임신, 출산, 육아,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고민을 해결함과 동시에 세분화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베페 케어'를 주제로 열렸다. 자녀 성장주기에 따라 필요한 물품들을 한 자리에서 직접 체험해보며 마련할 수 있는 점과 현장에서만 제공되는 사은 혜택 등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이 높았다.

이번 행사에는 새롭게 시도된 고객 참여형 이벤트가 이어졌다. 베페모먼트 갤러리에 걸린 이벤트 당선 작품들이 주목을 끌었다. 베페모먼트 이벤트는 본인의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사진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사연과 함께 남기면 30명을 선정해 이를 전문 작가 6명이 직접 그림으로 재탄생 시켜주는 이벤트다. 전시장을 찾은 엄마, 아빠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브랜드 클래스'도 진행됐다. 태교교실, 베이비마사지, 아이촬영 노하우, 영양관리 방법 등 다양한 주제의 강좌가 열렸다.

33회 베페 베이비페어와 함께 해주신
참가기업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제34회 베페 베이비페어

2018년 8월 23일(목) ~ 8월 26일(일)

COEX / Hall A, B

(주) 베페

0608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09길 4(삼성동, 베페하우스)

TEL. 02-556-2236 I FAX. 02-556-2261 I befe.co.kr